

격려사

질은 녹음과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더욱 푸르고 뜨겁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께 찬탄과 격려를 전하며, 제2회 KBUF Young Buddhist Camp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생 불자 여러분,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학생 불자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 및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로서 우리 사회의 동력이며 등불입니다. 현실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창조해 갈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대학생 불자로서의 본래면목을 늘 참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은 겉으로는 한 없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학력, 지위, 명예, 재물, 권력 등등 온갖 틀 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싯다르타 태자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위대한 깨침을 이루었고 부처님이 되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Maitreya!

미륵彌勒신앙의 중심지 금산사와 선운사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참가자 모두가 스스로 미래 자신의 삶의 자유로운 주인공이 되어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내딛고, 동체대비 자리아타同體大悲 自利利他的 부처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KBUF Young Buddhist Camp를 준비한 대불련 이인근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진력을 치하하며,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을 비롯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들만이 보일 수 있는 열정과 신심으로 여름 태양보다 뜨겁고 활기찬 캠프가

되기를 불보살님 전에 기원합니다. 오늘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Maitreya!" 입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